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구호품 왔다" 애타는 필리핀 미국 항공모함 USS 조지워싱턴호에서 이륙한 헬기가 17일 현지시간 필리핀 중부 타나완 지역에 도착, 쌀가마니를 내려놓자 주민들이 몰려들어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지나간 필리핀 중부 지역으로 항공모함을 급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AP 연합뉴스

단말기 유통 개선법? 개악법?

삼성전자 등 제조업계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주장에 미래부 "뒤에서 여론몰이" 경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은 그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대립해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단통법' 관련 제조사 입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에 대해 강렬히 반발했다. 제조업체들은 "단통법에 포함된 원가 공개 등 영업비밀 공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라며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시장에서 해외 제조사에 규제 및 조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휴대전화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우려를 근거로 단통법에서 제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미래부와 제조업계 측은 최근 2~3주간 장시간 미팅을 통해 단통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미래부는 제조업계 측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제조사 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과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미래부 측은 제조업계가 앞에선 대화하며 뒤에선 여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모습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제조업계 측이 최근 미래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바꿔 여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미 1차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제조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가 수정 내용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온라인 야간 특가, 휴대전화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장 등의 모습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독 국내에선 제조사가 휴대전화 유통에 관여를 많이 하는데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등을 이용해 시장 교란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렇다고 우리가 제조사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장려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제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 기반을 붕괴시킨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이동통신판매인협회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지난 5월 처음 발의된 단통법에 대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된 단통법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래부 오늘 공식브리핑 주목

미래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8일 발표하는 미래부 입장을 들어본 뒤 자후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서규정기자 ys403@metroseoul.co.kr

택시 영수증에 운전자 번호 잃어버린 지갑 쉽게 찾는다

서울시가 택시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 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사용을 할 때 택시운전자 자격번호를 인쇄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지갑 등을 잃어버린 승객들이 분실물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택시 영수증에 회사 이름과 택시 번호만 나와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운전자 자격번호가 기재돼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 속도가 시속 120㎞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한편 택시 요금 인상 후 하루 평균 운송 수입금은 15만656원으로 인상 전 14만5000원보다 3.9% 증가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하루평균 43.2건에서 33.1건으로 23.4% 감소했다.

/윤다혜기자 ydh@

진난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작업 건물 내외부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헬기 보유 33개업체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내 33개 헬기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헬리콥터 충돌사고를 계기로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17명을 투입해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 정비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안전시스템에서 마련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 강화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 헬기 블랙박스에서 비행 경로,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나서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추가 균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ly0452@

뉴스 & 뉴스

'NLL포기 논란' 촉발 정문헌 내일 검찰 출석

● 정문헌(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2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두언 곧 석방될듯…의정활동 재개 가능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그는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물량 밀어내기 원천 금지 등 유제품업계 모범거래기준 첫 제정

'제2 남양유업' 막는다

올해 유통업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제품 업계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제품 업계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는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구입 강제(물량 밀어내기)와 판매 목표 강제·경영 간섭·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시켰다.

먼저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 기간이 50% 이상 지난 제품 ▲주문하지 않은 제품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주체·일시·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대금 결제 방식을 특정 카드에 전용카드로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 결제 시 주문량과 공급량·대금 산정 근거를 확인 후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유제품 업계 이외에도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별도 구속력을 가진 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정원기자 jwy@metroseoul.co.kr

다가온 겨울… 꽁꽁 싸맨 외국인들 한낮 기온이 7도까지 올라갔지만 찬바람으로 인해 초겨울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외국인들이 두터운 옷을 입고 관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24일께 신당 창당 선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다음주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 측은 17일 신당 창당 작업과 관련해 "상당히 진전됐고 (창당 선언) 시기는 다음주 일요일인 24일 부근이 될 것"이라며 "정국 상황 등 외부적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날짜는 임박해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당 준비 작업을 공식화하고 창당 발기인대회,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수순을 밟아 내년 2월 이내에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24일은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11월 23일)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유선준기자

"정시 피하자" 수시 논술 열기 17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학생들이 2014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화여대는 16~17일 이틀에 걸쳐 1만5881명이 응시, 2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수시2차 13만명 몰렸다

서울·수도권 대학 지원자 수 9.3% 증가 — 경쟁률은 다소 떨어져

서울·수도권 대학 37개교가 2014학년도 대입수능 수시2차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경쟁률은 지난해 13.75대 1에서 12.52대 1로 떨어졌지만 지원자 수는 1만 1462명(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교육은 17일 "서울·수도권 대학 지원자 수는 13만5075명으로 서울 17개 대학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4만2834명, 수도권 20개 대학은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9만 20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원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수시2차 모집 인원이 8976명에서 1만772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별 경쟁률은 경기대(서울)가 32.00대 1로 가장 높았고, 경기대(수원) 27.75대 1, 한양대 26.71대 1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경기대, 동국대(21.05대 1), 건국대(16.99대 1), 서울여대(16.64대 1), 이화여대(11.86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경기대(수원) 일반학생전형 경찰행정학과로 4명 모집에 244명이 지원해 6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선택형 수능으로 정시 예측이 어려워지다 보니 수능시험 이후 논술 응시율과 수시2차 원서 접수율이 모두 올랐다"고 분석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용산구 청렴공무원 추천 접수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3회 용산구 청렴공무원' 선발에 나선다. 대상 1명, 본상 1명을 선발하며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에는 200만원, 본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해외 연수 등 특전도 부여된다. 문의 02)2199-6253

강서구 여성 교양대학 작품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9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오후 5시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 제31기 여성교양대학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3개월간 수업을 받아 온 여성교양대학 수강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총 1150점 작품의 판매수익금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 문의 02)2600-5340

동작구 초등학생 트리 만들기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다음달 21일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탄절의 유래를 알아보고 관련 놀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비는 1만원. 문의 02)595-0231

SAT 기출문제 빼돌려 '2억대 장사'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전문 브로커와 유출된 문제로 강의를 한 서울 강남 등지의 어학원 운영자,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브로커 8명,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12곳의 운영자 및 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적발해 21명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험문제 유출 브로커 A씨는 SAT 기출문제를 인터넷에서 산 뒤 이를 수험생이나 학원강사, 다른 브로커 등에게 358회에 걸쳐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2억 271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학원 운영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카메라를 가지고 SAT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 또는 촬영해 강의에 사용한 혐의다. /정연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동

영화 '벤허' 개봉

1959년 11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러닝타임 212분의 대작 영화 '벤허'가 개봉됐다. 미국 작가 루 월리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주연은 찰턴 헤스턴이었다. 50년대 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할리우드가 TV의 등장으로 관객이 줄어 위기를 맞아 MGM사가 1500만 달러의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만든 영화 '벤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회사를 살려냈다. 61년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11개 부문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비리 5개월 만에 581명 적발

경찰청이 17일 최근 4개월간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결과 164건을 적발해 관련자 581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횡령·금품수수액은 64억원으로, 입주자 대표 등이 도장공사·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260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횡령 사례도 228명(39%)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는 업체 선정 등 권한을 부여받은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가 237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소장·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162명(27.9%), 업체 관계자 139명(23.9%) 순이었다.

경찰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고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 각종 부패 고리가 만들어질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덕성-동덕 첫 여대 체육대회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홍승용)가 지난 14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덕성여대 하나누리관에서 동덕여대와 '2013 덕성-동덕 제1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풋살·줄다리기·닭싸움·피구·계주 등 5개 종목에서 대결을 펼쳐 2승3패1무를 기록했다. /덕성여대 제공

"대마도 땅 사는 한국인 감시"

日방위상 "군사적 잠식 우려"

"한국 기업의 대마도 토지 구입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1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날 대마도를 방문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울산시의 한 기업이 지난 6월 구입한 해상자위대시설 인접 토지를 시찰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구입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군사적 영토 잠식'을 우려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리조트 개발 목적 등으로 대마도 해상자위대시설 근처에 토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이 거론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방위시설 인근 외국인과 외국자본의 토지 취득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조만간 자위대의 주요 시설 등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속 타는 필리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식수를 받기 위해 물통을 들고 줄지어 서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인 '못말리는 식성' 비둘기 싹쓸이

metro HongKong

중국에서 신혼부부들이 웨딩 촬영을 위해 준비한 비둘기 100여 마리를 촬영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민들이 잡아먹었다고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3일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 몇 쌍이 특별한 웨딩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흰 비둘기 약 100마리를 샀왔다.

흰 비둘기를 배경으로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친 뒤 이들은 비둘기를 모두 '방생'했다. 하지만 촬영팀이 자리를 떠나지 비둘기들은 재앙을 맞았다. 시민들이 비둘기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온 것.

막 비둘기 한 마리를 잡은 시민은 "이 비둘기는 식용 비둘기라 먹을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미국서 또 파티장 총기난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파티장에서 또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16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남성이 휴스턴의 가정집에서 파티를 하던 청소년들에게 총기를 난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총 30발가량을 쐈다. 범행 후 도주한 용의자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앞서 지난 9월 휴스턴에서는 18세 고등학생의 생일파티장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조선미기자

이젠 '전염병과의 전쟁'

필리핀 정부, 태풍피해 환자 치료용 의약품값 동결 · 사망·실종자 4900명으로 늘어

필리핀 중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슈퍼 태풍 하이옌의 사망·실종자가 17일(현지시간) 현재 4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리핀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NDRRMC)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 수는 3681명, 실종자 수는 1186명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지역의 가옥 27만2000여 채가 완전히 붕괴되고 27만1000여 채는 부분 파손됐다.

현지 당국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도로 등 인프라 마비로 더디게 진행,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NDRRMC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프라와 농경지 등의 피해 규모가 2억3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쑥대밭으로 변한 필리핀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추가로 94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크리스탈리나 조지바 EU 인도주의 원조담당 집행위원은 태풍 최대 피해 지역인 타클로반을 둘러본 뒤 추가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도 필리핀에 48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총 2억7257만 달러를 지원받아 이재민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의 구호·복구 작업에는 2만2000여 명의 인력과 차량 1280여 대, 선박 77척, 항공기 110대가 동원됐으며 23개 외국 의료지원단이 의료봉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당국은 '태풍 환자' 등을 위해 약 200종의 필수 의약품 가격을 동결했다.

엔리케 오나 보건 장관은 "태풍 피해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전국의 의약품 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동결 대상은 정신적 외상과 부상, 설사 등 태풍 피해와 관련된 각종 질환 등에 도움이 되는 약품이다. 이와 함께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약도 동결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병원과 약국을 비롯해 필리핀 전역의 약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부는 또한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고 위생 시설도 부족해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전염병 방역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생명 나눔으로 마무리하는 2013년

헌혈 송년회 이벤트

삼삼오오 모이는 송년 모임! 올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요?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헌혈은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산타가 되어보는건 어떨까요?

참여 방법 연말을 맞이하여 3인 이상~50인 이하 각종 동호회, 지인 모임 등(모임 제한 없음) 헌혈을 송년 문화로 만들어 주세요

- 1단계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을 방문한다 (헌혈버스 포함)
- 2단계 헌혈 후 기념품 대신 희망풍차 기부권을 선택한다
- 3단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응모한다 (필수기재사항 : 헌혈자 이름 및 헌혈증서번호)

(희망풍차란?)

당첨자 경품
희망상 (1팀) — 피자 10판
사랑상 (5팀) — 피자 5판
행운상 (20팀) — 피자 3판 (중복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으로 결정)

행사 문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 (1600-3705)

참여 기간 2013. 11. 18 (월) ~ 2013. 12. 31 (화) 까지

발표 일자 2014. 1. 15 (수) 17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희망풍차

희망풍차의 회원이 되어 주세요!
후원 및 봉사문의 1577-8179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코스닥
2005.14 (+38.08)	512.74 (+0.99)
금리	환율
2.94 (변동없음)	1063.50 (-4.00)

뉴스 & 뉴스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 연장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 기한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김기자

증권사 직원 2년새 1700명↓

최근 2년간 10대 증권사에서만 7% 넘는 직원이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대 증권사의 9월 말 현재 직원 수는 2만4703명으로 2011년 9월 말(2만6438명)보다 1735명이 줄었다. 이 기간에 삼성증권 직원은 3733명에서 3163명으로 570명 감소했다. 동양증권 직원도 3044명에서 2481명으로 563명 줄었다. 전체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는 2011년 9월 말 1460명에서 올해 9월 말 1364명으로 96명(7.6%) 감소했다. /이국명기자 kmlee@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13	19	33	37	45	1

등위	당첨내용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05,210,188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1,851,703
3등	5개 숫자 일치	1,222,75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김○호
사장 편집인 김○학
편집국장 조○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1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9881

사흘간 18만명…그래도 선방했다

게임쇼 지스타 가봤더니

B2B관 역대최대 실적 - 플레이 즐기려 1시간 줄서기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이 17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개막 전부터 참가 업체 수 급감, 게임중독법 발의 등의 악재를 안고 있었던 지스타는 평년 수준(약 18만명 추산)의 관람객을 맞으며 내년을 기약했다.

물론 2005년 출범 이래 매년 관람객 수가 증가해왔던 전통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최악의 외부 환경을 감안했을 때 흥행 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번 지스타는 예년과 달리 비즈니스장으로 확실하게 변모했다. B2B관의 경우 지난해 726부스보다 41.3% 늘어난 1026부스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벡스코 ○○○ 중에 설치된 엠게임 모바일게임 '드림세스데이커' 시연 장소에 관람객들이 몰려있다. /엠게임 제공

지난해 실제 계약 건수가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도 무난히 관련 수치를 새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B2C관에서도 비즈니스 느낌이 물씬 풍겼다. 특히 부스를 단독으로 내기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합동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작지만 실력 있는 모바일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공동관을 차렸고 모바일게임 커뮤니티사이트인 '힘그리엠'은 게임로프트, 와이디온라인, 그리, 안드로메다 게임즈, 구미 등이 제작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연 장소를 마련했다.

부산게임기업공동관, 보드게임 공동관 등도 별도로 부스를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공동 부스를 준비했다.

온라인게임 트렌드 측면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도전하는 게임들이 관심을 사로잡았다.

AOS(일대전) 장르의 간판인 '리그오브레전드'와 경쟁하는 넥슨의 '도타 2', 블리자드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현장에서 플레이를 즐기려는 관람객을 한 시간 이상 줄서게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이머의 축제였던 지스타가 업계 사람들의 거래처로 변신하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실속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의 지지가 없는 행사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그림 보며 독도사랑 키워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는 30일까지 12층 '갤러리 H'에서 '독도사랑 그림전시전'을 연다. 이 전시전은 미국 전역의 한글학교 어린이 3500여 명과 교포 및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I Love Dokdo 독도사랑 그림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그림으로 가로, 세로 10cm 크기의 타일에 그려진 그림들로 구어졌다. /현대백화점 제공

"코스닥 저가매수 위험…대형주 사라"

금융가 사람들

■ 키움증권 전지원 연구원

"최근 펀드 환매 행진은 결국 가계의 현금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돈이 필요해진 가계들이 대거 펀드 환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지원(사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펀드 환매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국내 중소형 주식 펀드로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이후 국내 중소형주 펀드 환매 규모는 설정액의 14.4%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설정액이 늘었던 중소형주 펀드까지 다른 대부분의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자금 이탈 흐름에 가세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일반 주식형 펀드 대부분은 환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연구원은 "이번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책 부양 기대감에 올 초 중소형주가 각광을 받았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강력하다는 건 그만큼 그 업황이 어렵다는 의미이며 정부의 정책은 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걸 시장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중소형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타려면 먼저 글로벌 시장과 국내 내수 시장이 자생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 연구원은 향후 펀드 시장이 살아날 시점에 대해 "내년 2분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펀드 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다만 2005~2007년 펀드 광풍이 불었던 당시만큼이 아니라 완만한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할 것을 조언했다.

전 연구원은 "경기 회복을 뜨는 해에 비유하면 현재는 해가 어중간하게 떠서 대형주에만 햇빛이 들고 중소형주엔 그늘이 진 상태"라며 "대기업이 본격적인 설비투자를 해서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저가 매수 전략은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망 업종으로는 IT·자동차 및 부품·조선·제약·중국 소비주 등을 꼽았다. /유현희기자 hhkim@

서울 외곽 전셋값 폭등 용인 수지구 15% 최고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금이 올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용인 수지구로 조사됐다. 지난 주말 현재 14.9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셋값 상승률은 성남 분당구가 13.55%, 일산 서구 13.06%, 부천 원미구 12.93%, 안양 동안구 12.63% 등 순으로 높았다. 서울 강서구와 수원 영통구 전세 가격도 올해 각각 11.73%, 11.43% 상승했으며 경기도 의왕시도 10.72%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폭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울 세입자들이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겼다"며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은 내년에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 전세 급세 현상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즉 잠실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분당·용인 동탄까지 나갈 수는 있으나 교육 여건이나 생활환경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오산이나 안성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서울 외곽에서도 분당 등 일부 지역 전세 급등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지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위대한 특가

Special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위대한 특가는 경쟁력 있는 항공 요금으로 생성된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을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실속있는 상품입니다.

중국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상품	일정	가격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130,000부터
상해/항주/주가각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19,000부터
장사/장가계/원가계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449,000부터
곤명/석림/구향동굴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599,000부터
홍콩/마카오/심천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99,000부터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상품	일정	가격
대만(아류,온천,화련)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599,000부터
방콕/파타야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299,000부터
푸껫 휴양지의 여왕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499,000부터
캄보디아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499,000부터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399,000부터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상품	일정	가격
규슈 온천여행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제외)	3일	349,000부터
오사카 ★ 고베야경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399,000부터
북해도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599,000부터
오키나와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399,000부터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강남점 1600-6963

www.hanatourist.com

80세까지 실버암보험 가입 가능

라이나생명 상품 내놔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 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진단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080-951-8585

동부 3조 규모 자구계획

동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유동성 위기설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부그룹은 2015년까지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동부제철 인천공장, 동부발전 당진 등 주력 계열사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illegible] 기자

스마트폰 '중국의 역습'

中 화웨이·레노버 3분기 판매량 LG전자 누르고 나란히 3·4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강력한 중국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진을 거듭 중인 중국 업체들이 3강을 노리던 LG전자를 밀어내고 애플의 2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최종 집계 결과 삼성전자(35%, 8840만 대)와 애플(13.4%, 3380만 대)에 이어 중국 업체인 화웨이(5%, 1270만 대)와 레노버(4.8%, 1220만 대)가 나란히 3·4위를 차지했다. 지난 분기 세계 3위였던 LG전자(4.7%, 1200만 대)는 5위로 밀려났다.

중국 업체의 약진은 이것만이 아니다.

3분기에 새로 등장해 이름마저 생소했던 샤오미(11위)가 520만 대를 판매해 2.1%의 점유율로 쿨패드(15위)를 앞서며 단숨에 11위까지 뛰어올랐다. 쿨패드(3.6%, 900만 대), ZTE(3.4%, 860만 대)도 7위와 9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18.9%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5분의 1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중국 스마트폰의 진격을 당분간 멈추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만 3억 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내수 시장 수요를 등에 업은 데다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관영방송인 CCTV가 애플과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품질과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나만의 스타일, Style tag 출시

맞춤형 패션 서비스 '스타일태그' SK플래닛은 사용자 기호에 맞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스타일태그'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SK플래닛 제공

비벼먹고 끓여먹고 전통 장 '3단 변신'

웰빙 트렌드 맞춰 조리과정 줄인 제품 쏟아져

우리 전통 장이 화려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양념 중 하나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단독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중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더해져 별도의 조리 과정을 최소화해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웰빙 트렌드에 따라 라면이나 빵 보다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식품업계에서도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장 시장에서 틈새시장으로 양념이 더해진 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 소비자들에 의해 형성된 고추장 시장의 규모는 약 18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추장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을 더한 고추장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상 청정원은 일찌감치 순창 찰고추장에 잘 볶은 쇠고기와 마늘 등 갖은 양념을 더한 '청정원 쇠고기 볶음고추장'을 내놨다. 밥에 고추장을 넣어 비비기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튜브 형태로 만들어 캠핑이나 여행 시 특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천호식품도 쇠고기를 갈지 않고 적당하게 썰어 씹히는 맛을 살린 '군림도는 한우 볶음고추장'을 내놓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록마을도 고추장에 단양 육쪽마늘을 첨가해 씹히는 맛까지 더한 '단양육쪽마늘고추장'을 선보이고 있다.

된장의 변화도 만만찮다. 된장 자체에 갖은 양념을 더해 끓이기만 하면 시원한 국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청정원 '순창 조개멸치 찌개된장'은 된장에 멸치 추출액과 조개엑기스를 비롯해 대파·마늘·양파 등 양념을 함께 넣어 만들어 따로 육수를 내고 양념을 할 필요가 없다.

풀무원 '찬마루 청양초 된장찌개 전용'은 구수한 전통 된장에 칼칼한 청양초를 넣어 깔끔한 맛을 살렸다. 역시 육수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주재료에 된장을 넣고 물만 부어 끓이면 완성된다. CJ제일제당 '다담 된장찌개 전용'도 재래식 된장에 해물 육수와 멸치 분말을 첨가하고 갖은 양념을 더해 만든 찌개 전용 양념 된장이다. /정은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어그부츠 따뜻해요 홈플러스는 겨울철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그부츠 판매를 시작했다. 간편한 탈부착에 트렌디한 컬러의 여성 어그부츠 3종을 1만9900원에, 북유럽스타일의 눈꽃패턴의 털 실내화와 어그스타일의 털실내화도 9900원부터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기름기 쏙 뺀 '구운면'·오븐에 스팀으로 찐 '도넛'

튀긴 라면·과자는 가라

식품업계에 기름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 튀기지 않은 라면에서부터 스낵류까지 종류도 확산되고 있다.

기름에 튀기는 것이 당연시됐던 가공식품에 기름이 쏙 빠졌다. 실제로 대상 청정원은 시판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베이크 핫도그'를 지난달 출시했다. 핫도그빵을 기름에 튀겨 동결시켰던 기존의 핫도그와 달리 생도우를 그대로 오븐에 구워 만들었다. 오래 보관해도 기름 냄새가 나지 않고 눅눅해지는 것도 줄였다.

켈로그 스페셜K는 최근 시리얼이 아닌 감자칩 '스페셜K 라이트 칩'을 새롭게 선보였다.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들어 1회 제공량(감자칩 21개·23g)이 93kcal밖에 되지 않는다.

라면도 튀기지 않은 면발이 프리미엄 라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양라면에서 출시한 '구운면'(사진)은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 만든 제품이다. 독특한 제면 방법인 컨벡션 오븐에 구운 독자적인 기술로 새로운 제조법은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다. 기존의 유탕면과 건면의 단점을 보완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은 낮췄다. 풀무원 '자연은 맛있다' 시리즈와 농심 '야채라면' 등도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만들어 맛이 담백하고 칼로리가 낮다.

튀기는 대신 쪄서 만든 간식류도 인기다. 오리온 '닥터유 튀기지 않은 도넛'은 '도넛은 튀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븐에 스팀으로 쪄서 만든 제품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버리고 오븐의 스팀을 활용해 도넛의 촉촉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살렸다. 저온에서 제품을 익혀 영양소 파괴가 적고, 식물성 유의 담백하고 촉촉한 식감을 그대로 담았다.

청정원 '고구마츄'는 신선한 고구마를 바로 쪄서 그대로 말린 제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정은지기자

한우>닭고기… 5년만에 매출 역전

대형마트 육류 소비현황

대형마트에서 한우 매출이 5년 만에 닭고기(생육+계란)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이곳에서 판매된 육류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5년 만에 한우가 닭고기 매출을 능가했다는 것이다.

한우 매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닭고기보다 앞섰지만 2008년부터는 닭고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 흐름이 역전됐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을 집계한 결과 한우가 51%, 닭고기가 49%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한우가 닭고기를 넘어섰다.

이렇게 한우와 닭고기 매출이 역전된 것은 한우 가격이 하락해 돼지고기·닭고기 못지않게 대중화됐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올해 한우 가격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예년보다 10%가량 저렴해졌지만 닭고기는 사육 두수가 감소하며 시세가 10%가량 상승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축산물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니 '한우 1등급 등심(100g)'은 2008년 6288원에서 올해 6083원으로 하락한 반면, 생닭(1kg)은 2008년 4258원에서 올해 5982원으로 비싸졌다.

또 대형마트 업계가 소비 촉진 행사에 적극 나선 것도 주요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한우데이를 맞아 롯데마트 전국 105개 매장에서 '다들간 한대판' 한우 매출은 약 100억원가량으로 이는 롯데마트 연간 한우 판매액(약 800억원)의 12~13%에 달했다.

이 밖에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은지기자

롯데마트 한우데이 행사 전경. /롯데마트 제공

뉴스 & 뉴스

소프트크림 판매수익 1% 기부

● 미니스톱은 지난 14일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프트크림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니스톱은 연간 소프트크림 판매 수익의 1%를 사랑의열매 측에 기부한다. 소프트크림은 원유 함량이 50% 이상으로 우유의 진한 맛이 느껴지는 미니스톱의 대표 상품이다. 전국의 미니스톱 점포(일부 점포 제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세계 최고

● 인천공항 면세점 에어스타 애비뉴(AIRSTAR Avenue)가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러 중국판이 실시한 2만 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중국인이 뽑은 세계 최고 면세점'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에어스타 애비뉴는 이에 앞서 비즈니스 트래블러 미주판과 아·태판에서도 각각 '미국·아·태지역에서 뽑은 올해 세계 최고 면세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에서와 '세계 최고 면세점' 선정으로 3관왕을 휩쓸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국산·수입 중고차 브랜드별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그랜저TG	1,970	1,390			
	그랜저HG			2,520	[illegible]	2,880
	YF쏘나타	1,600	1,470	1,580	1,920	2,180
	아반떼MD		1,310	1,290	1,480	[illegible]
	아반떼HD	880	960			
	제네시스	2,300	2,550	3,000	3,620	4,010
	제네시스 쿠페	1,460	1,520	1,600	2,080	
	에쿠스(신형)	3,520	3,780	4,510	5,340	6,680
	싼타페CM	1,700	1,900	2,120	2,300	
	그랜드 스타렉스	1,400	1,600	1,650	1,920	2,180
	포터2	970	1,080	1,130	1,430	1,540
기아	K5	—	1,640	1,710	2,000	2,080
	K7	[illegible]	1,800	[illegible]	2,300	2,720
	올 뉴 모닝			910	940	1,040
	뉴모닝	510	670	690	—	—
	스포티지R		1,930	2,010	2,190	2,060
	[illegible]	850	1,080	1,280	1,452	1,567
르노삼성	뉴 SM3	[illegible]	[illegible]	1,120	1,340	
	뉴 SM5(신형)	—	1,450	1,520	1,850	—
	SM5 뉴 임프레션	740	1,080			
	SM7 뉴 아트	1,600	1,680	1,770		
쉐보레	스파크			1,010	940	900
	[illegible]	1,020	1,150	1,250		
	말리부	—	2,200	2,250	2,870	3,100
벤츠	뉴C-클래스(C200)	2,800	3,180	3,300	3,910	4,160
	뉴E-클래스(E[illegible])	3,530	4,110	4,320	5,000	5,480
	뉴S-클래스(S[illegible])	5,590	7,130	[illegible]	9,760	
BMW	뉴3시리즈(E90-E91)	2,890	3,140	3,000	3,820	—
	뉴5시리즈(F10 F11)		3,960	4,250	4,720	5,250
	뉴7시리즈(F01 F02 F03)	5,480	6,330	7,190	8,320	9,040
아우디	뉴A4(T?)	2,560	2,660	3,060	3,600	3,670
	뉴A6(C7)			4,030	5,620	5,480
	Q7(4L)	4,320	5,800	6,900	—	—
폭스바겐	골프TDI	[illegible]	2,120	2,050	2,560	2,970
	더 뉴 비틀(2.0)				3,470	3,180
	티구안(2.0)	2,370	2,860	3,040	3,530	3,5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부드러워진 벤츠 C클래스

대시보드에 곡선 추가 GPS연동 에어컨 설치

2014년에 데뷔할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C클래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많이 더해졌다. 우선 대시보드는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곡선을 추가했다. 또한 센터콘솔에는 손가락으로 조절하는 '커맨드 휠'과 함께 터치 컨트롤을 마련했다. 이는 마우스 모양으로 생긴 터치패드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화면에 나온 글씨나 버튼을 일일이 클릭하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아우디와 BMW가 이와 유사한 기술을 먼저 적용했으나 동급에서는 C클래스가 최초다. 센터페시아에 마련된 스위치들도 기존보다 숫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이얼 방식을 거의 없애고 부드러운 터치방식으로 바꿨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GPS 연동 에어컨이다. 이는 GPS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은 후 터널 진입 전에 공조장치를 외부 유입에서 내부 순환으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이다.

신형 C클래스의 기본형인 C180은 유럽 복합 모드 기준으로 ℓ당 17.2~20.0km의 연비를 자랑한다.

신형 C클래스는 내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데뷔하며 한국에는 2014년 하반기에 출시된다.

/정의헌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아베오RS' 출시 행사 열려

한국GM은 다운 사이즈 터보 모델의 세 번째 주자인 '아베오RS' 출시를 맞이 16일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쉐보레 터보 나이트 드라이브 행사를 개최,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이벤트를 열었다.

온라인 이벤트 추첨을 통해 초청된 200여 명의 참석 고객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모던 라운지 '이이엠 어 댄싱선생'에서 열정 넘치는 콘서트와 이벤트, 시승 기회를 통해 쉐보레 터보 제품의 역동성과 퍼포먼스를 경험했다. /정의헌기자

공공기관 '마지막 옐로카드'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지난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일대 혁신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 비율이 500%를 육박하고 있고 지금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중이다.

지난해 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무려 493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간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도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고 현 부총리가 질타할 정도다. 최근에만 해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비롯해 방위산업체까지 납품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공기업의 현실이다.

흔히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최고경영자(CEO)들의 높은 연봉은 물론 적자 경영과 관계없이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무려 1조6400억원에 달한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노출됐지만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고질화돼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번 현 부총리의 발언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거 때마다 전기·도로·철도·수도요금을 동결하는 포퓰리즘은 물론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사업 등 선심성 대권 공약이 부실 경영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노조에 빌미를 줘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고질적 낙하산 인사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돼 임직원의 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이 이제 제기돼야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다.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illegible]보다는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

포토프리즘 가을인가 했더니 어느새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은행잎이 수북이 쌓인 산책로를 지나고 있다.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쌀쌀해진 날씨 속에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어느 겨울을 기다려본다. /손진영기자 son@

"이러니 게임이 되겠어요"

뉴스룸에서

박 성 훈
<경제산업부 차장>

독일의 지방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부산에 왔다.

독일의 16개 연방주 가운데 하나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 2013' 현장에서 '한·독 게임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요점을 먼저 밝히면 "한국에 있는 회사를 독일로 이전하면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NRW 연방주 측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게임을 개발하면 10만 유로(약 1억4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기업이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금액은 3배까지 늘어난다.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등도 무료로 지원한다. 즉 함께 일할 독일 현지인을 고용하면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파격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주 관계자는 "술과 마약을 규제하는 독일에서는 게임을 잠재력이 큰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달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현지인과 원활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자신하면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그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게임 산업 관계자들은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으려는 한국 정부와 독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을 것이다.

게임중독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특히 게임에 심취한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와의 대화도 거부한다는 사례에 이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많지 않은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오류가 아닐까. 설사 이러한 예가 빈번하다 해도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있는 사항을 정부가 강제로 금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자국 국민을 중독자로 만들려는 것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계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있었다. 폭력·외설 수위가 높은 장면을 자르는 것인데 그때도 관중은 분노했다. "가위질하는 사람은 봐도 되고 우리는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가위질하는 사람보다 어리석다는 얘기인가?"

게임중독법 찬성론자도 한때 필름에 가위질했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영화가 그랬듯이 게임도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날이 머지 않았다.

문명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한때는 플로렌치아로 불렸던 피렌체는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내려다보면 전경이 보일 정도로 작다. 플로렌치아라는 이름은 고대 로마 시대에 꽃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자그마한 도시가 13세기 이후 밀라노, 베네치아와 함께 르네상스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단테,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등에 이르면 우리는 피렌체가 낳은 천재 목록이 얼마나 눈부신가를 알게 된다. 이 피렌체의 힘을 만들어낸 주역 가운데서 역시 메디치 가문을 빼놓을 수 없다. 피렌체 공화국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는 교황이 거주한 바티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에서 이미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졌던 역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힘이란 단지 경제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에 있다는 깨달음을 메디치 가문이 몸소 실천했다는 점이다. 메디치 가문의 전설적 인물 코시모는 "메디치 집안이 쫓겨나는 것은 50년도 걸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남긴 예술은 영원히 남으리라"라고 말했단다. 그 예언 같은 말은 그대로 적중해서 우피치 미술관에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피렌체의 가장 유서 깊은 정부청사 팔라초 베키오가 있는 시뇨리아 광장에 들어서면 사방이 예술 작품 그 자체다. 그 뒤편으로 우뚝 서 있는 두오모 성당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는 피렌체의 상징이자 도시 전체의 힘을 단숨에 응집하는 느낌을 준다. 골목길 사이로 나 있는 작은 도로를 따라 거닐면, 단테의 두상이 있는 벽과 마주하게 된다. 그 아래 서 있어 보면 그의 걸작 '신곡'의 엄청난 기운이 내리는 듯한 환상에 휩싸인다.

이렇게 피렌체는 구석구석에 문명의 영감이 그득하다. 14세기 페스트의 습격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 이상이 멸절되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정신력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단단해지자 사람들은 인생과 역사의 근본에 대해 질문해나갔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근본적인 지점에 도달해보려는 치열한 열정으로 연소해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불태워 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재생(르네상스)의 동력'으로 빛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본질로 육박해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일까? 서울과 피렌체의 거리가 너무 먼 것만 같다.

드라마, 웃으며 보고싶다

기자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막장의 대모' 임성한 작가가 집필한 MBC '오로라 공주'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드라마는 10여 명의 주요 배우들의 갑작스러운 하차, 비상식적인 황당 전개, 무리한 연장 등으로 연일 시끄럽다. 임 작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퇴출 요구와 연장 반대, 조기 종영 등을 요구하는 아고라 청원에는 2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그런데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전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논란이 커질수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거듭 경신하고 있다. '욕하면서 본다'는 속설이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은 단연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작품성은 상관없이 그것도 가족 시간대에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의식 결여 탓이 크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들의 생각은 임 작가를 시청자의 비난이 있건 말건 작품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엔 tvN '응답하라 1994'나 KBS2 '비밀',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처럼 시청자들의 호평과 높은 시청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작품들이 늘고 있다.

미니시리즈와 주식 부류 이끌어가는 일일극은 상황이 다를지라도 굳이 수십억원의 원고료를 챙기면서 개연성 부족한 드라마를 써내는 기성 작가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젠 욕을 하면서가 아니라 웃으면서 드라마 좀 보고 싶다.

떠들썩한 연말파티가 공짜?

베네피트·코렐 등 이벤트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때문에 조용한 연말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특별한 파티를 열 수 있다.

베네피트는 '베네피트 크리스마스 파티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4일까지 베네피트 블로그에 있는 이벤트 공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스크랩한 뒤 홈페이지 파티키트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50팀(1팀당 4명)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준다.

파티 키트는 핑크색 모자 안경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소품과 함께 베네피트 인기 제품 미니어처로 구성됐다.

디너웨어 브랜드 코렐은 코렐 식기를 활용한 화려한 연말 파티를 열어준다.

27일까지 코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파티 날짜와 사연 등을 응모하면 10팀(1팀당 10명)을 선정해 강남구 청담동 알리고에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마찰 줄였더니 겨울에도 뽀송

환절기 '마찰'잡는 여성용품·클렌징 제품 눈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은 마찰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피부 전문가들은 "무심코 넘긴 작은 상처가 실제로는 아주 작은 마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부 질환이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마찰 잡는 깨끗한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피부보다 더 연약한 여성의 Y존은 특히 마찰에 민감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는 여성용품은 무엇보다 깐깐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성용품 브랜드 위스퍼의 '피부에 는 크리미 순면 감촉 시트'를 적용한 생리대로 '그날'의 피부 마찰 걱정을 줄여준다. 기존 제품보다 2배 더 공기가 들어가 폭신한 구션감을 선사하고 공기층이 크고 많아 흡수력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환절기 불청객 정전기는 특히 의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평소 빨래를 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섬유가 부드러워지면서 정전기 발생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다우니 퍼퓸 컬렉션 '미스티크'와 '이노센트'는 섬유유연제 기능에 향수만큼 좋은 향기까지 담았다. 과일 향의 탑노트와 플로랄 향의 미들노트, 우드 향의 베이스노트로 이뤄져 있어 하루 종일 은은한 향이 지속된다.

겨울철 탄력 있는 피부는 꼼꼼한 세안으로부터 시작되지만 2중 3중 세안은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필립스의 '비자퓨어'는 손을 쓰지 않고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는 회전 진동 클렌저. 상하 진동, 회전 기술이 손세안 대비 10배 더 깨끗한 클렌징 효과를 주고, 저자극 마사지로 피부톤을 환하게 개선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요즘 화장품 싼만큼 '제값'한대요

로드숍 제품 판매 20%↑

긴 불황의 여파가 화장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무조건 비싼 브랜드 대신 고품질의 '저렴이' 화장품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G마켓은 올해 1~10월 더페이스샵 등 로드숍 화장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화장품 전체 판매량이 8% 성장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 뷰티 프로그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슈퍼 아쿠아 맥스 모이스처 수분크림(1만9500원)은 가격 대비 큰 용량으로, 잇츠스킨의 '파워 10 포뮬러'(8800원)는 피부에 활력을 주는 에센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왼쪽부터 아쿠아 수분크림, 미스타인 페이셜 미스트, 어글리스 립스틱.

1만원대 이하의 중소 브랜드 제품도 다양하다.

미스타인 페이셜 미스트(6500원)는 미세 분사 시스템으로 메이크업 위에 뿌릴 수 있어 인기다. 어글리스의 컬러 파우더팩트(8800원)는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마무리감으로, '라이트컬러 롤리팝 립스틱'(9900원)은 선명한 발색력이 입소문 나면서 유명 브랜드들을 제치고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로드숍 화장품은 '싼 맛에 쓴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은 제품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몰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 브랜드라도 품질이 입소문 나면 히트 상품 대열에 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네쌀부츠 한 켤레 사면 한 켤레 기부 원 포 원(One for One)' 기부를 실천하는 슈즈 브랜드 탐스는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네팔부츠'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블랭킷을 증정하는 '2013년 홀리데이 키트' 이벤트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탐스는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호주 로퍼 브랜드 '롤리' 이달 국내 첫선

● 호주 로퍼 브랜드 '롤리(Rollie)'는 이달 중순 국내에 정식으로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롤리 슈즈는 신발 한 켤레가 2개의 바나나보다 가벼운 '초경량 신발'로 착화감이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내구성이 강한 '화이트 아웃솔'은 강화에바 소재를 적용해 걸을 때 발이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헤리토리, 21일까지 '교복 아우터 기획전'

● 세정의 캐주얼 브랜드 헤리토리가 21일까지 합리적 가격의 '교복 아우터 기획전'을 실시한다.

남성 아우터 2종, 여성 아우터 1종에 각각 두 가지 색상으로 모두 6종으로 구성했으며 각각 17만9000원이다. 활동성을 높인 후드 부착 점퍼 남성 다운 점퍼도 함께 선보인다.

편의점 상비약 40% 주말에 팔린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1년을 맞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약국 문을 닫는 시간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의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년간 요일별 매출을 보면 전체 매출의 23.5%가 일요일, 16.3%가 토요일에 발생하는 등 약 40%가 주말에 집중됐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간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8시에서 자정 사이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새벽 시간대(0시~6시) 매출도 15.4%에 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도 꾸준히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3분기 안전상비약 매출이 지난 2분기 대비 15.1% 증가했고, 2분기 역시 1분기 대비 8.5% 증가하는 등 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월별 매출 지수도 3월부터 100을 상회하기 시작해 지난 9월에는 추석 연휴와 환절기 등의 영향으로 140.9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군은 '해열진통제'로 전체 매출의 38.3%를 차지한 가운데 감기약(25.9%), 파스(20.1%), 소화제(15.7%) 순이었다.

안전상비약이 가장 많이 판매된 상권은 주택가로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52.3%)을 차지했다. /장병철기자

ByWP 안경 2014년 신제품

독일 출신 아이웨어디자이너 올프강 프록슈가 전 ... ByWP가 최근 옥토버페스트 행사를 가졌다.

ByWP의 한국 공식 유통사인 시원아이웨어와 함께한 옥토버페스트에는 디자이너 올프강 프록슈가 직접 방한해 2014년도 봄·여름 출시될 ByWP 신제품을 선보였다. ByWP의 내년 봄-여름 선글라스와 안경들은 비비드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565-6940 /박지원기자

'레이디즈 플랜 to 도쿄' 연장

일본항공은 한국지점에서 일본관광청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레이디즈 플랜 to 도쿄' 캠페인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20~30대 여성 리피터를 메인 타깃으로 하는 여행 지원 프로그램이다.

캠페인을 통해 할인과 특전을 받으려면 판매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SNS 미션을 수행하거나 특정 페이지에 접속해 할인 쿠폰 번호를 받아 결제할 때 제시해야 한다. 판매 대리점은 ▲내일투어 ▲여행박사 ▲오마이호텔 ▲온라인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등이다. /황재용기자

던킨 '모닝콤보' 50만개 돌파

던킨도너츠(www.dunkindonuts.co.kr)는 아침세트메뉴 '모닝콤보'가 출시한 달 만에 5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모닝콤보는 매장 개점 시간부터 오전 11시까지 판매하는 아침 세트메뉴로 지난 10월 첫선을 보인 이후 매일 1만 개 이상 팔리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겨울 비타민 보충엔 '모란씨'

김자가 찾아온 추위로 피부 건조와 감기가 고민되는 가운데 동아오츠카의 오란씨(ORAN-C)가 주목받고 있다. 160ml당 100mg의 비타민을 함유, 일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제로 카페인 제품으로 콜레이버 음료에 식물성 천연색소와 과즙을 넣어 인기다.

팔도 '꼬꼬면' 국물맛 리뉴얼

팔도가 '꼬꼬면'을 새로 리뉴얼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칼칼한 향과 맛을 줄이고 담백하고 순한 맛을 강화했다. 닭곰탕같이 자극없이 진하고 감칠맛이 나도록 국물 맛을 개선했다.

근무중 맥주 한 캔? 오해는 마세요

무알코올 맥주 등 연말 업무 스트레스 해소 음료 관심

연말연시를 앞두고 크리스마스나 송년회 등 즐거운 일도 많지만 업무가 몰리면서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하이트진로가 3040 남녀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야근이나 휴일 근무 같은 '초과 업무 발생'이 42%로 스트레스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 동료들과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이와 함께 업무 중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용 음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지친 몸의 건강까지 고려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 음료로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맥주의 청량감을 빼놓을 수 없다. 음주를 할 수 없는 근무 중이라면 맥주의 맛과 청량감은 그대로 느끼면서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무알코올 음료를 추천한다.

하이트진로 음료의 무알코올 음료 '하이트제로0.00'은 100% 유럽산 아로마 호프로 만들어 정통 맥주의 풍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알코올이 생성되는 발효 과정을 제외해 알코올은 전혀 함유되지 않았으며, 칼로리는 60kcal로 낮아 늦은 시간 야근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달콤하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도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가 돼 준다. 동서식품이 최근 출시한 '핫초코 미떼 카카오골드'는 기존 제품보다 카카오 함량을 2배 높여 진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카카오에 포함돼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강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일반 칼슘보다 흡수율이 2배 높은 우유 칼슘과 체내 설탕 흡수율을 낮추는 자일로스 슈가를 사용해 건강함과 단맛을 더했다.

물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식초 음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상의 '홍초밸런스워터'는 피로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분해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을 촉진시켜주는 식초의 효능을 기반으로 한 음료다. '홍초밸런스워터 멘탈'은 '청정원석류초베이스'를 기본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테아닌과 아르기닌을 함유했다. '홍초밸런스워터 피지컬'은 '청정원미네랄흑초베이스'를 기초로 타우린과 각종 비타민을 함유해 지친 몸의 피로를 덜어준다.

/황재용기자 ymre@metroseoul.co.kr

왼쪽부터 핫초코 미떼 카카오골드, 하이트제로0.00, 홍초밸런스워터.

불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 쇼핑 성수기인 연말을 앞두고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여주·파주·부산 등 3개 센터 별로 특색에 맞춘 대형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는 한편 건축물 위에 영상 쇼 '미디어 파사드'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연출하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행사 장면. /신세계사이먼 제공

티몬 연말까지 '몬스터세일'

소셜커머스 티몬이 연말까지 ▲5% 즉시 할인 ▲가는 추가 할인 ▲무료 배송 ▲적시가 보상제를 모두 포함하는 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 원 상당의 '몬스터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티몬이 서비스 시작 3년 만에 월 거래액 1000억원, 2013년 누적 순매출 1000억원 돌파 등 의미 있는 기록들을 갱신함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티몬은 다음달 1일까지 스토어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5% 즉시 추가 할인을 적용하고 여행과 컬처·지역 상품에서는 5% 적립을 실시한다. 게릴라로 2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98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도 준다. /황재용기자

엄마 되려면 '클라라 레깅스'는 참아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32.3%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6.1%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난임은 스트레스, 체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여성의 생체리듬이 불균형해지기 쉬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임신을 원한다면 체중 관리는 필수적이다. 너무 마른 경우에는 영양 결핍이나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무월경 등 생리 불순이나 배란 장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과체중인 경우에는 임신이 쉽지 않고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등이 발병하기 쉽다.

겨울이면 유행하는 레깅스 등 몸에 꽉 끼는 옷은 여성 건강에 독이다. 가장 흔한 증상이 질염인데 여성의 75%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질염은 증상이 심해지면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염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불임의 원인이 되거나 임신 후에도 유산이나 조산 가능성이 높아져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햇빛을 보는 것도 난임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타민 D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햇빛을 통해 체내 합성이 되는데 겨울에는 야외 활동이 부족해지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 비타민 D는 여성의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신이 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반신욕 좌훈을 하는 것이 난임 개선에 도움이 된다.

타이트한 옷 난임 주원인
질염 심하면 자궁 합병증

/윤재용기자 hyu 제휴

star bag

스태프 180명에 화장품 선물

배우 **박신혜**가 출연 중인 SBS 수목극 '상속자들'의 스태프 180명에게 통 큰 선물을 했다.

소속사는 17일 "박신혜가 12일 촬영장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밤샘 촬영으로 고생하는 스태프들을 배려해 화장품 보습 케어 4종 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박신혜는 이 드라마에서 가난한 현실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차은상 역을 연기 중이다.

"생애 첫 키스신 소원성취"

가수 **장기하**가 생애 첫 키스신에 도전한 소감을 밝혔다.

tvN 일일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 장율 역으로 출연 중인 그는 최근 상대역인 서예지와 키스신을 찍은 것과 관련해 17일 제작진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고 키스신까지 찍게 돼 소원 성취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키스신은 18일 방영된다.

"첫째 딸이었으면 좋겠다"

배우 **이보영**이 남편인 지성과의 자녀 계획을 밝혀 화제다.

9월 동료 연기자 지성과 결혼한 그는 16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 자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막연하게 있다.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상관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남편이 세심해 나보다 이벤트를 더 잘 생긴다"며 깨가 쏟아지는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애아 재활 위한 콘서트

가수 **션**이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을 위한 콘서트를 연다.

소속사는 17일 "션이 푸르메재단과 함께 마포구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착공을 축하하기 위한 '션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콘서트를 20일 연세대 백양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션을 비롯해 신션지, 레이지본, 제이레빗, 쏜풀 등이 참여한다.

운명적 사랑 아직 믿지만 한눈에 반하는 사랑은 NO!

영화 '결혼전야' **이연희**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 '내사랑' 순정만화' 등에서 풋풋한 첫사랑을 연상케 했던 배우 이연희(25)가 변신을 시도했다.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결혼전야'에서 첫사랑을 꿈꾸는 소녀가 아닌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숙녀로 한층 성숙해졌다.

◆ '결혼전야' 기다렸던 작품

'결혼전야'는 결혼을 결정한 남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 현상인 메리지 블루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이연희는 7년 장기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는 소미 역을 맡았다.

이연희는 "파격적인 변신이 아닌 기존의 이미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고심하던 중 '결혼전야'를 만났다"며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재밌게 읽었다. 특히 풋풋한 첫사랑이 아닌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미의 모습에 끌렸다"며 해맑게 웃음 지었다.

소미는 가슴 설레는 사랑을 꿈꾸는 네일 아티스트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스타 셰프 원철(옥택연)과 7년 동안 연애를 했고 어쭈런 프러포즈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한다. 하지만 결혼을 1주일 앞두고 우연히 웨딩작가 경수(주지훈)를 만나 심적 갈등을 겪는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성과 경계선을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경수는 운명적이라기보다는 나쁜 남자에 가까워요. 매력적이지만 좋은 만남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건 힘들겠죠. (웃음)"

결혼 앞두고 두 남자사이 갈등 네일 아티스트 소미역에 끌려 장기 연애는 해본적 없답니다

◆ 옥택연과 첫 연기 호흡

옥택연과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다. 그는 7년간 사랑을 쌓아온 연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안정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연인을 자연스럽게 연기하기 위해 빨리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촬영을 앞두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덕분에 택연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또래라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실제 오랜 기간 연애해본 경험이 없는 이연희와 옥택연은 주변의 장기 연애 커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건 편한 친구 사이 같은 편안함"이라고 조언했고, 이연희와 옥택연은 친구 같은 모습을 중점적으로 연기하려 됐다.

◆ 결혼이요? 아직은 일에 집중할 때

원철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미에게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권유한다. 이에 소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다. 일보다 사랑을 선택한 소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네일아트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연희는 "아직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할 때"라며 일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전했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길 원하는 이유가 '가정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라면 그만둘 의향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상대 배우와 사랑하는 감정을 보기 힘들다는 이유라면 제 연기를 마냥 연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제게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일 테니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연희는 "다시 한 번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님성은기자 [email partly illegible]
사진/이완기(밀스튜디오) 디자인/박은지

tvN

the(더) 순정예능

섬마을 쌤

샘 오취리

샘 해밍턴

브래드

아비가일

평균 한국거주 7년, 외국인 4인방의 순정예능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 11월 19일 첫방송

'K팝 스타 3' 제 2 수펄스 떴다

오디션프로 위기 돌파 관심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몰락한 가운데 24일 첫 방송되는 SBS 'K팝 스타 3'의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한때 예능가를 점령했지만 올해 MBC '위대한 탄생 3'가 초라한 성적을 거둬 폐지가 결정되고, 엠넷 '슈퍼스타K 5' 마저 시청률이 2%까지 추락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참가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본선 1·2라운드까지 녹화를 마친 'K팝 스타 3'는 뛰어난 참가자들을 대거 발탁해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에서는 방문하지 않았던 홍콩-대만-프랑스·오스트리아 등 해외 10개국, 국내 4개 지역에서 오디션을 진행했다.

제작진은 17일 "본선에서 시즌 1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수펄스를 떠올리게 하는 여고생 3인 그룹, '여성판 브루노 마스' 같은 참가자가 등장해 세 심사위원(양현석·박진영·유희열)이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고 귀띔을 당부했다.

/최종현기자 tak0427@

SBS 'K팝 스타 3'의 세 심사위원 박진영·양현석·유희열. /SBS 제공

15만 日팬 홀린 슈주·재중

슈퍼주니어 32곡 다채로운 무대 · 김재중 섹시 로커 모습 뽐내

K-팝 거물인 슈퍼주니어(사진 왼쪽)와 김재중(오른쪽)이 주말 일본 공연가를 종횡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두터운 현지 팬덤을 보유한 이들은 15~16일 각각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전히 뜨거운 한류를 확인했다.

슈퍼주니어는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월드투어 '슈퍼쇼 5'를 개최해 이틀간 9만 명을 동원했다.

'미스터 심플'로 공연의 포문을 연 슈퍼주니어는 '미인아' '섹시 프리 & 싱글' 등 일본에서도 오리콘 위클리 싱글차트 톱 3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은 히트곡과 유닛 무대, 분장쇼 등 총 32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김재중은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야외 공연을 열고 쌀쌀한 날씨에도 6만여 팬을 불러모았다. 100여 명의 스태프가 동원된 가운데 김재중은 길이 100m, 높이 15m의 웅장한 무대에서 14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이브를 선사했다.

그는 '버터플라이' '로는 러브' 등을 부르며 섹시한 로커의 모습을 보여줬고, 발라드와 록을 번갈아 선사하며 다양한 매력을 뽐냈다. 5곡의 일본어 곡을 불렀고, 완벽한 일본어로 관객과 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팬 서비스를 선사했다.

공연 관계자는 "대관 경쟁이 까다로운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한국 솔로 가수의 공연을 허가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솔로 가수가 스타디움 공연을 매진시킨 것은 대단한 기록"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배치기 연말 '의리 콘서트'

4월 팬들과의 약속지켜

힙합 듀오 배치기(사진)가 연말 따뜻한 무대로 팬들과의 의리를 지킨다.

4월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연말 공연을 약속한 배치기는 이를 지키기 위해 다음달 20일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에서 '2013 연말 배치기쑈'를 개최한다. 배치기는 "눈부시게 찬란한 한 해를 보냈다. 가수로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 팬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고 싶다. 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치기는 군 제대 후 3년의 공백을 깨고 올해 1월 '눈물샤워'로 컴백해 큰 인기를 얻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 방송 1위를 거머쥔 이들은 단독 콘서트도 개최하며 대중성과 실력을 모두 지닌 힙합 그룹으로 우뚝 섰다.

공연 기획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최하는 콘서트인 만큼 공연장 규모도 키워 최대한 많은 팬들과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기룡 '김홍도를 만나다'전

중견 서양화가 박기룡 화백의 11번째 개인전 '2013 김홍도를 만나다'가 대학로 베아이트센터에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조선시대의 천재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를 박 화백이 독특한 표현 기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박 화백은 무동, 씨름, 서당 등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드판에 그리고 문양이나 문자를 칼끝에 양각·음각으로 파내 조각했다. 또 흙가루와 젤스톤으로 질감 처리하고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해 반입체화로 표현했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 화백은 1991년부터 23년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2)747-6943

/박선영기자

수험생 반값공연 나들이 가자

세종문화회관 할인 이벤트

세종문화회관이 최근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매월 1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의 11월 공연이 26~27일 대극장에서 '수능 탈출!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공연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서울시합창단의 대표 인기 레퍼토리로 구성돼 관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문의 02)399-1114

M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봉선화'도 수험표를 제시하면 동반 1인까지 2만~3만원의 관람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연극은 1980년대에 위안부 문제를 목소리 없게 다뤘던 윤정모 작가의 소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현재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문의 02)399-1135

다음달 12일 M씨어터에서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발레단 공연 실황을 상영하는 '영상으로 만나는 영국로열발레 시즌 2012~2013'도 수험생들이라면 반값인 1만5000원에 볼 수 있다.

상영될 공연은 고전 발레 중 가장 화려한 작품으로 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다. 문의 02)399-1114

/박선영기자 hok9427@

정근우 70억 · 이용규 67억 · 이종욱 50억 · 손시헌 30억

하룻밤 137억 '큰손' 한화

'FA 대어' 정근우·이용규 전격 영입 ·NC는 이종욱·손시헌 80억 계약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가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화끈하게 돈다발을 풀어 하위권 탈출의 기반을 다졌다.

한화는 이대수(4년 20억원), 한상훈(4년 13억원), 박정진(2년 8억원) 등 내부 FA를 모두 잡은 데 이어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인 이용규(28), 정근우(31)까지 영입했다.

한화는 원소속팀과 우선 협상 기간이 끝난 직후인 17일 새벽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 FA 대어들을 낚았다. 정근우는 계약금 35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 등 4년간 총액 70억원에 계약했다. 이용규는 계약금 32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 등 4년간 총액 67억원에 새 둥지를 찾았다.

지난 시즌 류현진을 메이저리그로 보내며 두둑한 돈뭉치(280억원)를 챙긴 한화는 구단 전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올해 FA 시장에서 큰손의 위력을 떨쳤다. 김종수 운영팀장은 대학 후배인 정근우와 이날 새벽 직접 만나 담판에 사인을 받아냈다. 이용규 영입을 위해서는 노재덕 단장이 자정에 지나자마자 연락해 "이글스의 내년 시즌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김응용 감독은 협상 중인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한 신뢰를 보냈다.

두산의 외야와 내야를 책임지던 이종욱(33)과 손시헌(33)은 자신들을 발굴해준 김경문 감독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NC는 이종욱과 계약금 28억원, 연봉 5억원, 옵션 2억원 등 4년간 50억원에 계약했다. 손시헌과는 계약금 12억원, 연봉 4억원, 옵션 2억원 등 4년간 30억원에 사인했다.

이용규를 내보낸 KIA는 LG와 협상을 보지 못한 이대형(30)을 영입해 기동력을 보완했다. 이대형은 KIA와 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옵션 2억원 등 4년간 총액 24억원에 계약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와! 3관왕…장하다! 장하나

KLPGA 투어 상금왕·대상·다승왕 싹쓸이 기염

장하나(21·KT)가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장하나는 17일 전남 순천 승주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시즌 마지막 대회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에서 공동 10위를 지키며 시즌 총 상금 6억8909여만원을 기록했다.

장하나는 이번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오른 김세영(20·미래에셋)을 제치고 생애 첫 상금왕을 차지했다.

장하나는 대상 포인트에서도 공동 1위를 달리던 김효주(18·롯데)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가 이번 대회 공동 13위에 머문 사이 장하나는 11점을 추가하여 총 387점으로 최다 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다승(3승) 부문에서도 김세영과 공동 1위를 지켰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를 친 이민영(21·LIG)에게 돌아갔다. 이민영은 공동 2위 김현수(21·롯데마트)와 김하늘(25·KT)을 제치고 생애 처음 KLPGA 정규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유순호기자

장하나가 17일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우승 인터뷰 도중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넣은 골프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3 조직위원회 제공

이상화 올 네번째 세계신 ·심석희 10개대회 연속 金

'빙속 여제' 이상화(24·서울시청)와 쇼트트랙 '차세대 여왕' 심석희(16·세화여고)가 연일 쾌속 질주를 펼치며 소치올림픽 금메달 희망을 밝혔다.

이상화는 17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6초36으로 세계기록을 작성했다. 이상화는 전날 36초57의 세계기록을 세운 데 이어 하루 만에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올해만 네 번째 세계기록이다. 이번 시즌 들어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뛴 네 번의 레이스 중 세 번 연속 신기록을 썼다.

심석희는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2013~2014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5초106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심석희는 지난 시즌 여섯 차례 월드컵에 이어 올 시즌 네 번의 월드컵 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하며 10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1500m에서는 지난달 2차 대회를 빼고 9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17일)

홈	득점	득점	원정
서울	2	2	인천
제주	1	2	대구
대전	1	0	성남
부산	1	0	수원

프로농구 전적 (17일)

팀	1Q	2Q	3Q	4Q	합계
삼성	17	18	20	13	68
KCC	16	15	11	18	60
오리온스	19	20	16	20	75
전자랜드	22	12	22	11	67
LG	16	23	20	20	79
모비스	23	15	18	16	72

프로배구 전적 (17일)

홈	세트	세트	원정
한국전력	3	2	러시앤캐시
현대캐피탈	3	0	LIG손해보험
기업은행	3	2	도로공사